‘동승’ 재창작 연극, 무대 오른다

국립극단 창작 신작 ‘삼매경’
7월 17일~8월 3일 명동예술극장
동승 도념役 지춘성, 주연 맡아
과거-현재-연극 혼재 상황 그려
7월 26~28일 접근성 회차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극단이 올해 새로 선보이는 창작 신작 ‘삼매경’의 이미지 사진. 희곡 ‘동승’을 재창작했다.

‘동승’은 한국 연극사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문인 함세덕이 극작, 유치진 연출로 1939년 초연됐다.

한국 희곡 중 서정적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은 ‘동승’은 깊은 산속에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 ‘도념’의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 내 이어지는 인물들 간의 대립과 갈등, 다양한 인간 군상의 등장은 타오르는 어린 동승의 욕망에 기름을 붓는다. 불성과 인성의 갈등, 운명과 인연을 반복시키며 인간의 주체적 의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한국 희곡의 고전이자 명작인 ‘동승’이 재창작돼 ‘삼매경(원작 함세덕, 재창작·연출 이철희)’으로 무대에 오른다.

국립극단(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은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창작 신작 ‘삼매경’을 공연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삼매경’은 원작 ‘동승’의 뼈대 위에 새살을 입혀 재창작한 작품이다. ‘삼매경’은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은 한 편의 연극 연대기이자, 한 배우의 자전적 기억의 편린으로 다시 태어난다.

실제 1991년 박원근이 연출한 ‘동승’에서 스물다섯의 나이로 동자승 ‘도념’ 역을 맡았던 배우 지춘성이 세월을 입은 ‘도념’으로 다시 관객 앞에 선다.

하지만 연극의 배경은 사뭇 다르다. ‘삼매경’은 59세의 배우 지춘성이 34년 전 자신의 ‘도념’ 연기가 실패라 여기며 살고 있다는 설정으로 저승길에서 삼도천으로 뛰어들어 과거와 현재, 연극과 현실이 혼재된 ‘삼매경’을 경험한다는 줄거리다. 이처럼 배우의 인생과 이력이 전체적인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되는 것이 ‘삼매경’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다.

연극은 이철희 연출가가 ‘삼매경’의 재창작과 연출을 맡았다. 이철희 연출가는 수많은 한국 근현대희곡 중 재창작 작품으로 ‘동승’을 택한 이유에 대해 지춘성 배우를 꼽았다.

이 연출가는 “배우가 현실에서 실제로 겪는 고뇌와 의지를 역으로 극속으로 데려와 현실과 연극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지점을 들여다보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립극단은 ‘배리어 프리’ 트렌드에 맞춰 7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수어통역을 비롯해 한글자막, 음성해설, 무대모형 터치투어, 사전 대본열람, 이동지원을 제공하는 접근성 회차를 운영한다.

한편, 연극 ‘삼매경’ 공연 예매는 국립극단과 NOL티켓(구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여름 맞이 별미 출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이 7월부터 여름 한정 메뉴를 출시한다.

‘발우공양’은 제철 재료를 활용해 계절마다 코스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코스는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등 총 4가지로 운영하며, 각 코스에는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를 포함한다.

대표 메뉴로는 △표고버섯냉면 △우무묵잣콩국 △참외무침 △애호박메밀전병 등이 있다.

발우공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예약은 발우공양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예약에서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발우공양이 선보이는 여름 메뉴들.

단청 명장이 구현한 연화장세계

국립무형유산원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개최
故홍점석 단청장 작품 전시


홍점석 단청장의 작품 ‘금단청 현무도’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보유자였던 석운 홍점석(1939~2024) 선생은 단청을 통해 연화장세계를 그려내고자 했던 신심 높은 불자 장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에서 2025년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석운 홍점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故 석운 홍점석 거사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단청의 장엄하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그의 작품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 ‘단청의 길’, ‘연화장 세계를 열다’까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에서는 석운 거사가 생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에 출품했던 ‘청룡·백호 단청문양’을 비롯해 ‘대량초 단청문양’, ‘금단청 현무도’, ‘양산 통도사 단청 모사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단청의 길’은 석운 거사가 평생을 단청장엄에 매진해 온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보유자인정서’, ‘단청 작업 일람표’, ‘단청 작업복’, ‘계첩’ 등 그의 기증품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전시 섹션인 ‘연화장 세계를 열다’에서는 이 같은 석운 거사의 불교 및 작품관이 표현된 ‘단청문양도병풍’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어린 시절 암자를 다니며 단청, 탱화 등 불교미술에 호기심을 갖게 된 석운 거사는 1969년 조계종 단청문양 조사단에 참가하면서 월주 덕문 스님을 만나 단청에 평생을 매진하게 된다. 법명인 ‘석운(石雲)’도 그림 스승 월주 덕문 스님에게 받았다.

스승이 주는 시왕초, 보살초 등을 1000장씩 그려내며 실력을 쌓은 석운 거사는 전수장학생(1977년), 보유자 후보(1982년)를 거쳐 1997년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청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석운 홍점석 선생의 삶이 이번 전시로 다시 한 번 되새겨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환생 존속 발표 티베트는 환영, 중국은 반발

7월 2일, 제도 존속 공식 발표
세계 불교단체 환영 입장 표명
7월 5일, 90세 축하법회 봉행


지난 5일 다람살라에서 봉행된 구순 기념 법회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 뺀빠체링과 인사하는 달라이라마. 사진 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7월 2일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환생 제도에 대해 “제도를 존속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

티베트 불교권의 사회와 각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데 반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7월 5일에는 달라이라마의 세수 90세를 축하하는 대규모 기념 법회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봉행되는 등 기념행사도 잇따르고 있다. 달라이라마를 둘러싼 각계의 반응에 대해 세계 여러 외신들이 앞 다퉈 특별 보도하고 있다.

앞서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7월 2일 달라이라마가 직접 성명서를 낭독하며 “달라이라마 제도를 존속할 것이며 달라이라마 재단만이 미래 환생을 인정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티베트 불교권에 속한 여러 국가와 전세계의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앞서 여러 차례 달라이라마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번 성명에서 밝혔듯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제도를 존속키로 결정했다. 특히 발표가 이루어진 시기, 인도 다람살라에서 제15차 티베트 종교지도자 대표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해당 발표 직후 회의에 참석한 티베트 불교 각 종단의 종정들과 불교단체의 대표들은 환생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악의적 간섭을 거부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티베트 망명정부 내각은 “(달라이라마 제도의 지속) 발표는 티베트와 티베트 대중의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의 지속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나타낸다”며 달라이라마의 발표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공식성명을 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달라이라마나 판첸라마와 같은 고위 라마의 환생자는 반드시 금병추첨으로 선택돼야 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병추첨은 청나라 때 중국황실의 권유로 도입된 달라이라마 선출 제도 중 하나다. 금항아리 안에 환생 후보자들의 이름을 넣어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는 방법인데, 현 달라이라마는 금병추첨을 거치지 않고 선출돼 티베트 정부의 승인으로 확정됐다.

중국불교협회 역시 “역대 달라이라마는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칭호를 받았으며 이것이 달라이라마의 칭호의 종교적 지위와 역사적 정통성의 근원”이라며 “중앙정부가 환생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결코 14대 달라이라마의 개인적 재량에 따를 수 없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 티베트 불교 권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연구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흔히 이루어지던 책봉제도에 대한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이러한 논리라면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던 당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현대에도 완전히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티베트 학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종교적인 전후맥락은 삭제하고 오직 중국 황제가 금병추첨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13대 달라이라마는 국민당 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전통적인 중국 황실이나 새로운 국민당 정부의 관리 및 간섭을 모두 거부한다는 공식 발표를 낸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8563-2356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